

# iii 대안가정

통권5호 (2004/봄. 계간) <http://www.daeanhome.org>



▲장난감 공원에 간 정규와 정환이

2. 스케치 / 2004년 정기총회
3. 스케치 / 집들이 정경
4. 대안가정 일기 (7가정)
11. 집중 / 가을이는 위탁대상이 아니라는데...
12. 특집 / 아동복지사업지침을 통해 본  
가정위탁제도의 문제
14. 상담현황 및 소식
15. 회비(후원) 내역 및 재정
16. 후원안내 및 알림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핀/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4. 5. 6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 628-2592 / 전송 (053) 628-2594

## 2004년 정기총회

기록 / 이태원 이사



지난 2월 16일 대안가정운동본부의 2004년 정기총회가 열렸다. 2003년 총회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직후라 참담한 분위기에서 돌아가신 이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었다. 1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희생당한 분들의 가족이나 부상자의 아픔은 얼마나 치유되었을지, 아직 뒷 조치도 미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 온다.

그러나 새로 옮긴 사무실이 오래된 2층 양옥이라 예전 사무실보다는 훨씬 아늑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난다. 거기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갖가지 음식들을 준비해 저녁식사부터 하다보니 회의라는 딱딱한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며 대화를 하는데 출발은 조류독감이었다. 모두 통닭 한 도막씩을 맛있게 들면서 조류독감의 전염경로나 인체감염경로 등을 이야

기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결에 대한 의식 수준도 별반 높지 않은데 조류독감이나 사스의 감염자가 왜 없을까 하다가 이야기는 영화로 넘어갔다. '태극기 휘날리며'가 화제에 오르며 이젠 헐리웃에서 한수 배워가야 할 영화라고 극찬하다가, 이야기는 실미도로, 한국영화의 눈부신 성장으로까지 이어졌다.

시간이 되어 김명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2004년 정기총회가 시작되었다. 200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서는 계획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내용, 차질없이 진행되었던 내용 등을 꼼꼼하게 짚고 있어 회의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어서 2004년도 사업과 예산안 심의가 계속 되었다. 올해 사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후원음악회 개최와 가정위탁관련법을 청원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후원음악회와 시민견기대회를 올해에 다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둘 중 하나만 실행하되 음악회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 새로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한 박선아 변호사가 가정위탁관련법 청원에 힘을 쓰겠다는 의지를 밝혀 참가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2004년 예산안에서 사무실 임대료 부분에서 결정적인 오타를 발견, 뒤늦게나마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정회원 전원이 참가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지난 한해 동안의 대안가정운동본부의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전망을 세울 수 있어 뿌듯했고, 그래서인지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기운이 가득했다.

## 집들이 정경

2004년 1월 16일(금) 낮 12시부터 하루종일 집들이를 했습니다. 이번 집들이는 1층을 사무실로 쓰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함께 했습니다. 비빔밥, 배추된장국, 떡, 오징어무침회, 과일 등의 다과를 준비했는데 가장 인기가 좋았던 음식은 오뎅꼬치였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었다는 평이었지요. 살이 퉁퉁한 꽃게를 4마리나 넣어 국물이 정말 끝내줬거든요. 사무실 마당에 포장마차를 차리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요. 1백여명의 손님이 집들이에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대안가정 가족 및 회원들,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다녀가셨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판을 달고나니 집은 물론 골목이 휼합니다.



△하루종일 푸짐한 상차림을 했습니다.



△대안가정 가족들(하영이네와 동진이네)



△사무실에선 몇시간째 진지한 대화가 이어지고...



△대안가정 엄마들은 2층 복도에서 한없이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새벽 1시)



**2004. 2. 19 / 가을이네 집입니다!**

가을이는 779g의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한잠을 살았답니다. 가을이 엄마가 위암수술을 해야했기 때문에 빨리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뭘 병명이 그리 많은지, 또 왜 그리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말인지, 병명만 들어서도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고 난 후에도 여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답니다. 오랫동안 달고 있던 모니터를 떼고 지난 15일(일) 드디어 퇴원을 했답니다. 아빠는 위암으로 결국 세상을 먼저 떠난 엄마의 치료비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진 상황이라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가을이가 미숙아라 일반가정에 위탁을 보내는 건 위험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수시로 병원에 들락거리며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구요. 결국 가을이의 고모님이 가을이를 맡아서 키워주시기로 했답니다. 고모네 언니와 오빠는 조막만한 가을이를 들여다보며 이뻐서 어쩔줄 모릅니다. 가을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을이네 집에 자주 놀러오세요!

**2004. 3. 2 / 초기지원금 잘받았습니다**

벌써 체중이 4kg이나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딸이 카메라폰으로 가을이 사진을 찍는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이 신기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덕분에 가을이도 잘 먹고 변도 잘 보고 발길질도 열심히 차는 모습에 힘들지만 부듯한 마음도 듭니다. 가을이 아빠도 가을이가 커는 모습에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 3. 15 / 가을 이를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

가을이는 잠들어있고, 이모가 대신 손톱을 깎아주고 계시네요. 친이모는 아니지만 마땅한 호칭이 없어 이모라고 부릅니다. 가을이 고모님이 볼일을 봐야 하거나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할 때마다 와서 가을이를 돌봐주신답니다. 아기들을 너무 좋아하고 예뻐해서 기꺼이 가을이를 돌보기로 하셨지요. 조그만 가을이를 안고 손톱을 깎아주는 모습이 꼭 엄마 같았답니다. 이크! 시집도 안간 처녀한테 실례를... 이모님! 용서하세요! 오빠는 무작정 가을이가 예뻐합니다. 가을이가 울어서 시끄럽지 않니? 하고 묻자 고개를 가로 저으며 웃습니다. 그냥 무작정 좋은 모양입니다. 고모와 이모 두 분 다 가을이에게 엄마 같은 분들이지요. 가을이가 자라면 알겠지요? 두 분 다 가을이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2004. 3. 16 / 가을이 참 예쁘지요~**

사진으로 보니 우리 가을이가 참 예쁘네요. 지금 이 시간에 가을이는 잘 자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깨어나서 새벽까지 저 하고 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보채기도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오후에는 송광익소아과에 가서 간염2차 예방접종을 하고 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너무 자상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친절하시네요. 그런데 사진에 제 얼굴 때문에 가을이 얼굴이 돋보이지를 안네요. 오른쪽 사진은 다른 곳으로 멀리 보내버렸으면 심네요. 오늘 하루 일을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정환이네 집

2004. 1. 10 / 면도하다 혼쫓난 정환이

지난 연말부터 아이들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모는 진짜엄마가 아니고 가짜엄마니까 그냥 엄마라 불러준다고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엄마가 되고 보니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무엇을 하다가 좀 안되는 것이 있으면 엄마! 하고 불러대고(화장실에서 엄마! 여기서 엄마! 저기서 엄마!) 둘이서 경쟁하듯 하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 정환이가 엄마를 찾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조용해서 들여다봤더니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휴지가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형아 면도기로 면도하는 흉내를 내다가 그만 입술을 베인 겁니다.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싶어 조금만 혼냈습니다.



2004. 1. 14 / 강아지에 게 당하고 울어버린 정규

어린이집에서 재기를 만들어 와서 놀면서 자꾸만 강아지에게 대고 혼들어대더니 결국 강아지가 재기를 물고는 찢어버렸습니다. 재기가 엉망이 되었다고 정규가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저도 놀랐습니다. 형이 우니까 동생은 저쪽 구석에 가서 더 크게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형의 아픔은 곧 동생의 아픔. 형의 눈물은 동생에게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동생에게 형이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형제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04. 2. 23 / 쓱쓱 커버린 정규와 정환이

며칠 아이들과 떨어져 지냈더니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 듯 합니다. 어린이집을 마치고 들어오더니 제 목소리를 듣고는 와락 뛰어와 안깁니다. 정규는 눈물이 글썽글썽, 정환이는 엄마 다리 수술했냐고 묻습니다. 많이 아팠지? 합니다. 형아는 엄마 없는 동안 힘들었으니 이제 쉬어야겠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토끼같은 아이들은 저를 얼마나 반기는지. 아이들이 며칠 전보다 훨씬 키가 자란 것 같습니다. 정규는 얼굴에 살이 통통하고 정환이는 이제 어린이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며칠동안 형아한테 시달렸나 봅니다. 형아가 가짜아빠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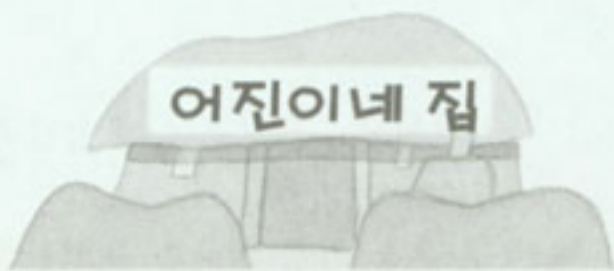
훨씬 무서웠다고 합니다. 맨날맨날 혼났다고 정환이는 그동안 있었던 걸 얘기합니다. 나쁜 형아라고 제가 혼내줬습니다.

2004. 3. 8 / 오늘 아침 정규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정규는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너무 좋은가 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는 포크를 안 쓰고 젓가락을 사용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젓가락도 잘 움직인답니다. 가슴이 부스부스하다는게 느껴지다니깐요. 8시 40분 정도에 차가 오는데 그새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정환이는 형에게 인사도 잘합니다. "형아! 잘 다녀와 나도 잘 갈게! 이따가 만나!" 합니다. 한살 더 먹고 봄이 되었다고 아이들이 훨씬 의젓합니다. 옷들도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고귀한 왕자님이 되어버렸는지 전혀 꼭 하녀가 시종드리는 기분입니다. 정규·정환이가 밝고 맑게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더 이상 바랄게 뭐 있겠습니까.

2004. 3. 15 / 혼란스런 이모

며칠새 정환이가 부쩍 컸습니다. 어눌했던 말솜씨도 또렷해졌고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 냅니다. 형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도 아주 조리 있게 잘 표현합니다. 이모부한테 반항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엄마아빠한테 돌아갈 것이란 기대가 정환이한테는 큰 힘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참고 이모부 집에서 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지 정규가 전보다 많이 혼란스런 행동을 합니다. 유치원을 12시에 마치고 어디든지 꼭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문제는 귀여움을 받은 날은 예외 없이 온 식구를 힘들게 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한 30분 정도 울더니 밤 12시 정도에 깨어서 또 옵니다. 또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를 깨웁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 비비며 TV보러 나오는데 어찌된 건지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참을 울거나 봅니다. 땀으로 목욕을 한 듯 합니다. 밤새 정규에게 시달린 저는 하루가 엉망입니다. 부엌에서 일을 해도 바로 도마앞 코밑까지 따라 옵니다. 양념이 된다고 가라해도 금새 또 옵니다. 우유를 마시고 20분도 안 지나서 우유 안 먹었는데 왜 안 주냐고 합니다. 아까 먹었잖아 하니 안 먹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봐 조금 전에 먹었지? 하니 안 먹었습니다. 허 참! 이런 경우 참 모난감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알다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진이네 집

2004. 1. 8 / 배탈난 어진이

어진이가 어제 오후에 몇 번 토했다. 오랜만에 놀이방에 가다 와서 내 친구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아름다운 가게에 다녀왔다. 친구를 내려주고 오는 동안 놀이방 가다 와서 먹이게라 토스트를 다 토하더니 집에 와서도 계속 토한다. 놀이방에서 먹었던 점심까지 토하나보다. 그래도 그밤엔 잘 잤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몇 번 먹고 계속 잔다. 10시에 일어나서 길래 흰죽을 몇 숟가락 먹었다. 혹시 토하며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도 설사는 안 하는데 방귀 냄새가 장염에 걸릴 때 냄새가 난다. 기운이 없어서인지 떨어지지 않으려 해서 오저 내내 포대기로 업고 이었었다. 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보다. 요즘은 먹이게 시원해서 이 물 꼭 해진 거스리는데 또 배탈이 일어나니. 어진이 너 무척 잘 먹는다고 입밖으로 칭찬을 해주면 마 아프고 내일이 일어나라. 어진아!



2004. 1. 15 / 아후~ 고집쟁이

어진은 그냥 기분 좋아 놀 때는 아주 순하고 웃기도 잘한다. 꼭 순한 송아지처럼 웃는다. 요즘은 또 테레비를 보다가 뭘 아는지 깔깔거리고 웃는다. 그 모습이 우스워서 엄마가 깔깔대면 저도 또 깔깔대다. 어른들이 깔깔대면 뭘지도 모르고 따라 웃는다. 그런데 이놈이 한번 수를리면 아무도 웃지 못한다. 안아준대도 싫고 업어준대도 싫고. 엄마도 아빠도 누나도 싫다. 하도 울어 엄마가 성질이 나서 제 옆을 떠나면 떠난다고 난리.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다고 난리. 화나면 한 30분은 울어댄다. 아빠가 얼러보지만, 아빠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엉덩이 맴매. 요즘은 점점 자기 고집이 세져서 밥 먹을 때도 제 맘대로 해야 된다. 손가락도 제 맘대로고, 반찬을 제 밥속에 이겨저저 다 섞어놓으려고 해서 못하게 하면 뒤집어진다. 어진이 아마 하고 집할 것 같다. 앞으로 엄마 더 힘들게 생겼다. 아이구! 큰일났네. ㅋㅋㅋ

2004. 1. 15 / 어진의 재롱

어진이가 요즘 얼마나 예쁜 짓을 하는지. 저녁때 현관문 소리가 나면 제일 먼저 아빠를 외치며 충알같이 달려 나가는 거 어진이. 단어실력도 많이 늘었다. 무(물), 까(과자), 엉아(형아), 웅아(누나), 엄마, 아빠, 애기, 안돼 안녕 소리는 정확하게 발음한다. "테비(테레비) 꺼(꺼 or 개)" 소리도 치고, 음악이 나오면 춤도 잘 춘다. 요즘은 재롱을 부릴라며 꼭 엄마 무릎을 탁 치며 "엄마, 아바(나 봐)" 하고 맴맴을 돈다. 아빠에게도 자기 보라고 "아빠 아바" 하고는 맴맴을 돈다. 오늘 저녁에 또 두 다리와 두 팔을 벌리고 눈을 위로 하얗게 뜨고 다리를 흔들며 춤을 춘다. 어찌나 귀엽고 예쁘던지. 아이구 예뻐라. 내새끼(죄송해요.. 아이가 예쁘면 나오는 후렴이랍니다) 나는 복도 많지. 이런 행복을 누리다니...

2004. 3. 14 / 양마 ~ 이제 슬슬 변을 가려야 되지 않겠니?

우리 어진이 곧 22개월이 되어간다. 종민이는 그맘때 대변도 곧잘 가리고 소변도 반은 싸고 반은 가렸었는데, 아 이놈은 어찌 된 거지 응가를 할라치면 어디 으스스한데 똥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재빠르게 하고 나온다. 꼭 저녁 준비 할 시간에 하는 바람에 현장을 놓친다. 가끔씩 대변보려는 기색이 있어 변기에 앉히면 펄펄 뛰고 일어나 버려서 다시 기저귀를 채울 수밖에 없다. 두돌 무렵이면 대개 다 가리던데, 종민이는 가리면서도 지금까지도 밤에 지도를 그리곤 하긴 했지만, 어진아~ 이제 슬슬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자.

2004. 3. 25 / 동네 한바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신 후 엄마가 바빠서 저랑 많이 놀아 주질 못한다. 이제 놀이방도 종일반을 다닌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6시쯤 아빠가 일찍 퇴근해서 데려오거나 누나가 데려온다. 집에 와도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저녁을 먹고 나도 설거지가 많다. 어진은 그게 불만이다. 설거지하는 데서 떼를 쓰고 울어대서 아빠한테 가라고 하지만 아빠한테는 가기가 싫다. 엄마가 더 좋으니까. 어진이 울음 그치는 방법은 엄마가 안아주거나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 그래서 아빠는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는 맨날 어진이 데리고 동네 한바퀴를 돌고 온다. 돌고 오면 엄마의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제 차지가 된다.



동진이네 집

다며 트트하 동진의의 어금니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2004. 1. 27 / 동진이네 못말려!

다시 한번 자시을 하보며, 마음은 가 한  
지기 위해 동진에게 대하 가치 이야기  
게요. 어제가 그날을 올리는 이지만, 동진이  
는 아이답지 않게 의외의 의해서, 주위를  
래 키는데, 저의 가족을 다스려 하느  
가끔 있어요. 얼마 전에 사를 배  
이었는데, 아저씨가 어서 자마자 동진이  
와! 대머리다." 그러자 아요. 동진이  
이어서 어 하는데, 바를 고르고, 아저씨  
지도 생가하며  
우도 위요.

또 한번 어지  
로 우겨서 어  
여 타에 어  
데 (이 녀석  
타이종은가  
어떤 아종  
고 마지 짜  
다. "그지  
서 죄송하다  
조나 자리  
저년 신사  
차려주고  
어라고  
했더니, "저  
~ ~ ~  
"자, 미역국이  
수가 기장이  
치이의 다음  
치구요. 다  
하거죠 뭐.  
만 하지는  
무엇 사랑스  
럽답니다.



2004. 1. 29 / 결국은 어금니를...

동진이가 저의 지에 오면서부터 이가 아프다  
고 해서 한남치과에서 두 이상 치료를 받  
는데, 어제 다시 치과를 찾았더니 이제 더  
버틸 수가 없다며 결국 어금니를 뽑아  
처음 치료받을 당시에도 많이 아프  
지만 아직 어려서 영구치에 영향이  
그 시기를 최대한 연장했는데 영구  
체를 버렸네요. 자자기 전에 먹는  
지질에 시경을 많이 써는데 이렇게  
니다. 위장염만으로도 영구치에 영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영  
수든 어오는데 문제는 계속 지켜보  
시면서, 보조기구를 치아에 걸어서  
법을 권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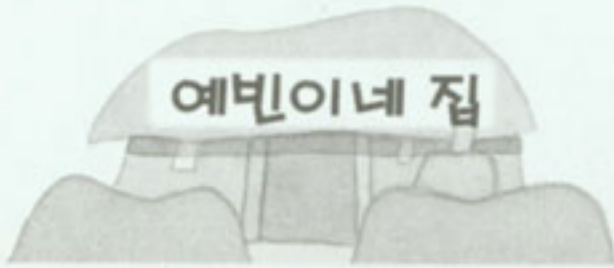
2004. 2. 24 / 말투

요즘 동진이의 기분이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잠자다가 하두번은 화장실에 가서 일어나  
자부터 그 버릇이 없어져서 아침에 일어나  
는데 도움이 되나 봐요. 그리고 어린이집과 미  
소학원에도 재미있게 다녀오는데 거기서 새로  
처음도 배우고 가꾸 사투리도 가져오더구요.  
"여기 왔을 때 '있지요? 맞지요?' 봤지  
요?" 이러 말할 때 "있지요? 맞지요?"  
지나 11월쯤부터 약가 으시대는 투로 "이다 아  
이가, 맞다 아이가, 해다 아이가" 처럼 아이  
가름 하더니 얼마 전부터는 "위데? 위데?"

사용하더구요. 다  
사안이 자시의 뜨  
다하게 행동하거  
만할 때 "위데?"  
"위데?"를 부르  
게 외치고 합니다.  
하가지 트트하  
나이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살 때 이모는 몇  
살이었어요? 내  
시살 되며 누나  
시살이야? 하루  
노아하고 넘어  
난이 없을까?  
보. 특히 아버지  
세와 다른 사  
나이 비교를  
하는데 가슴이  
때가 있어요.  
이의 질문에 대  
하고 우리부부  
살 되면 이모,  
이모부는 몇  
살이야?"

2004. 3. 5 / 집에 가고 싶어요

지난밤 동진이가 잠들기 전에 이모부라 이러  
저러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이 빨리 집에  
시다고 했다. 왜냐구" "우리 집에 가  
과자를 혼자 많이 먹었어" "우  
실은 오후에 차를 봐주면서 세 번 큰  
자를 하나 사왔는데, 동진이가  
누나가 허락도 없이 몇 개만 남겨두고  
다. 그 일로 하바탕 나리가 나는데  
에 들면서까지 맘에 남아 있어나  
가는데 과자를 사더라도 하나를 사  
도 안 하는데 아직 적응이 잘  
동진이의 말에 이모부가 잠깐 새  
"치아! 하고 부르며 과자를 많이  
"이유와 나누며 살아야 하는 거  
하게 일러준다. 동진이는 "이  
알아드는데" "다해" "이  
기, 수박, 사과, 과일을 많이  
다. 과자를 많이 먹어서  
이르며 잠자리에 든다



예빈이네 집

2004. 1. 7 / 잠꼬대

항상 밤늦게야 잠이 드는 나. 막 잠이들려고 하는 순간, 코골며 잠자던 아빠가 갑자기 예빈이 어디지? 하는게 아닌가. 깜짝놀라서 쳐다보니 아빠의 잠꼬대가 시작됐는데 더욱 가관인 것은 그소리에 썩썩거리며 자고 있던 예빈이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잠에 취해 폭 쓰러진다. 근데 이어 예빈이 사랑해! 하니까 예빈이, 자면서도 으응! 하고 대꾸를 한다. 기가 막혀서, 아주 궁합이 척척 맞네. 그러곤 한 두어 시간 지나나 싶더니 이번에 예빈이가 놀란색(노란색), 빨란색(빨강색), 팔란색(파란색)하며 잠꼬대를 한다. 으악! 제발 잠 좀 자자 잠 좀. 무유! 그 덕에 잠이 이 화악! 나난 밤 꼬박 새다. 예고~ 줄러!

2004. 1. 12 / 쓰레기통 뚜껑

유난히 깔끔을 좋아하는 예빈이! 바닥에 떨어진 개알알 같은 머지도 그 알알이 지나치는 법이 없다. 방바닥 머지가 난에 띄지 않으면 다리를 꾸욱 뻗고 자기 방바닥가랑 사이사이를 벌리며 먼지를 찾는다. 거기서도 발견 못하면 손가락 사이를 벌리며 찾고. 그런 깔끔이 예빈이에게 제일 큰 벌은 쓰레기통 뚜껑 열까? 하는 말이다. 이래도 비죽비죽 저래도 비죽비죽 하길래 "너 자꾸 그러면 엄마가 쓰레기통 뚜껑 연다 쓰레기통에 들어갈래?"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가락을 입에 대며 뚝! 하며 참는다. 그러데 내가 한마디 더하면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엄마 드가! 엄마가!" 하고 악을 쓴다. 오메 돌아버리겠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콩알만한 딸년한테 쓰레기통 드가란 소리를 다 듣고(에그 되로주고 말로 반았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 예취! 예취! 재채기에 콧물꺼 정~ 예고 예고 머리아...

2004. 2. 19 / 신문에 내라!

엄마하고 머리를 감다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 바람에 천사의 한쪽 귀에 물이 조금 들었어. 목욕 다하고 아빠가 면봉으로 귀에 물을 닦아

줬는데 그 다음부터 천사는 아빠를 잡기 시작. 보는 사람마다 "아빠가 귀에 물 넣었다" 하고 아빠가 씻겨서 내보내며 "엄마! 아빠가 뜨겁게 했다" 하고 이르고, 머리가 길어 눈을 찌르는 것을 아빠가 머리를 올려 핀을 꽂아 주었는데 "아빠가 눈 찌렀다" 한다. 화가 난 아빠, 이 짜식이! 벌써부터 사람 잡고 있네. 와!~ 폼 있으면 신문에 나겠다 하며 씨익 씩~ (ㅋㅋㅋ 말도 못 알아듣는 애하고 싸우는 아빠! 올해 몇이신가 물어볼게네 ^^)

2004. 3. 18 / 지~발 좀!

모든 것에서 관심과, 호기심, 또 발전을 보이는 예빈이. 노는 것 또한 남자 아인지 여자 아인지 모르게 설쳐대다. 자전거 의자 위에 올라서서 양팔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고, 자동차



를 옆으로 눕혀놓음. 고, 의자와 자전거를 붙여놓고 의자에 한발 자전거에 한발을 올리고 서서만 흔들는다. 내가 누워 있으면 올라타고 앉아서, 따그! 따그!(말달리는 소리) 엄마! 말이야! 말! 하며 말뼀다. 말을 안 사준 죄로 이 엄마 당하고 있을 수밖에. 후! 하지 말라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막무가내.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기장되고

진땀이 난다. 화장대 앞에 서서 이거저것 제 손바닥에 쏟아 얼굴에 토닥거리며 바르는 시늉을 하고는 엄마! 예빈이 예뻐?(이럴 때 여자 맞는데) 하고 묻는다. 아니, 못난이야! 하고 대꾸하면, 못난이 아냐! 예쁜 토끼야! 하며 소리를 지른다. 아이구! 이 돼지야! 하는 소리에도(질겁을 하며) 자기는 예쁜 토끼란다. 제 눈에도 돼지는 못생겼나보다. 기가차서!

2004. 3. 23 / 매일 매일이 생일인 엄마!

어눌한 발음으로 노래도 잘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린이프로 율동도 잘 따라하는 예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생일 축하합니다'이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사랑하는 울 엄마 생일 축하한다. 후~(촛불 끄는 것) 엄마! 생일 축하해~ 응! 고마워 ㅎㅎㅎ 매일매일, 하루에도 열 두 번씩 생일 축하를 받는 엄마들 계세요



2003. 12. 9 / 코고는 아이들...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김\*·\*전도사님은 코고는 아이에 있어 단연 지존입니다. 국내에 있을 때 캠프를 가면 늘 스스로 자신을 왕따(?) 시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의 크기를 탱크에 비교합니다. 많이 피곤하실 때는 정말 비수한 소리가 납니다. 드럭! 드럭! 그 다음으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나눔의 이\*·\*가사님입니다. 자매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드럭! 푸~우! 자매의 특징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점심 때 오복이와 잠깐 누웠는데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가사님의 소리와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늘 웃고 자더니 아이들에게 전염을 시킨 것 같습니다. 드럭! 쿵! 드럭! 도저히 8살 아이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름을 밝히기 곤란한 그 자매의 중간 이름을 따서 오복이를 도복이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하하

2003. 12. 29 / 우리 이제 학교가요

올 봄과 여름에 나눔의 식구가 된 오복이 오민이 대호. 오복이는 처음 와서 "어린이집 보내주세요"라는 말 대신에 "오민이 어린이집 온?" 오민이가 어린이집을 가야한다는 것보다 자기 의사를 오민이를 반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렇게 가형이와 다이이가 다니던 아이사랑 어린이집의 한 식구가 되어 아침마다 시장골목에서 피카츄 그림이 세겨진 노란 봉고차를 기다린다. 나눔에서의 여행 외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도장을 찍는데도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차를 보면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면접을 보러간다. 정규 면접식날 지리산으로 산행을 가기에 학교의 배려로 다음날 조용히 우리식구들만의 면접을 가질 수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자마자 책 읽는 아이들의 동상으로 뛰어가 성모님이라고 부르며 대호. 오민이는 다리보다 더 높은 계단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오복이는 퍼런 태극기 앞에서 구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우리들의 면접은 동욱이가 공부하고 있는 유치부실에서 가졌는데 가식으로 나온 과자 두 점심을 수식간에 먹고, 여기저기 진열되어 있는 쿠키함으로 가서 저마다의 소질을 살려 놓았다. 오민이는 당연히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오복이는 블럭, 대호는 혼자서 옆반에 가서 실로폰을 두드리다. 이들의 면접은 나 혼자만의 시험으로 끝났지만 이 날. 언어영역, 수학영역, 생활영역, 예술영역도 되는 시험지에 '예', '아니요'를 표하는 것

이었다. 마지막에 학교생활에서 향상되었으며 하는 란에 오복이는 자신감이 있는 어린이가 되었으며, 대호는 지금 읽기만 이루어지는 학습이 쓰기까지 이루어졌으며, 오민이는 할머니의 학대로 생긴 어른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누구도 마주치고 오민아! 불렀을 때 달려와 안기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썼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면접시험이 피곤한지 모두들 잔다. 어린이 집에서 잘 적응했던 것처럼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며 지낼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2004. 1. 6 / 대호의 언어습관

경상도에서는 손자가 귀염다는 표현으로 할머니들이 종종 '이놈의 새끼'라는 표현을 쓴다. 나눔의 귀염둥이 천재 소년 대호는 나눔에 오기 전 할머니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 무심코 지나가는 말로 "대호야! 누구 새끼?"라고 물으니 대답이 걸작이다. "이놈의 새끼" 하하하 대호의 언어 습관 중 압권은 모든 물음에 뒤부분의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에 정답은 엄마가 좋다이다. 며칠 전 골드레트리버 종의 예쁜 강아지가 나눔에 새가족이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좋아하는데 대호는 질색을 한다. 그런데 대호에게 "대호야 아빠가 좋아 강아지가 좋아?" 물으면 대호 왈 "강아지가 좋아"이다.

2004. 4. 1 / 우리는 형제랍니다

오복이 오민이 이름만 들어도 둘은 형제다. 오민이가 한번도 형이라고 부른적 없지만 오복이는 그의 형이다. 저녁식사가 끝나면 둘은 다 정히 화장실로 향한다. 오복이는 성인변기에 오민이는 아기변기에 앉아 중간에 있는 문열을 열고 볼일을 본다. 때로 우리가 오민이의 처리를 놓치는 날에 오복이가 "내가 오미 닦아 줘" 한다.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한 시가. 동욱이와 오민이는 한바탕 아니지만 같은 유치부다. 그래서인지 싸우기도 잘 한다. 오민이는 잘 생기 동욱이 얼굴에 깊게 손톱자욱을 남긴다. 동욱이가 질세라 오민이를 울린다. 그런데 오민이에게 흔적이 없다. 그러다 옷을 올려 팔을 보면 동욱이의 치아가 물고 간 자리가 여기저기... 둘이 싸우면 오복이는 동욱이를 말린다. "오미 때리지 마라!" 그렇다고 주먹이 동욱이에게 날아오는 법은 없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들 스킨십을 원하고 한거나 얹어달라고 한다. 그러나 오복이와 오민이는 한번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선뜻 오질 못한다. 잘 때 아아주거나 팔베개를 해줘도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가려고 안달이다. 둘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저께는 둘이서 한방을 쓰게 되었다. 오복이가 오민이를 안고 자는 거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인지 아직 타인들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는다. 그러나 둘은 피를 나눈 형제이기에 다정할 수 있나 보다.



### 해뜨는집

#### 2004. 2. 29 / 태극기 휘날리며

방금 돌아왔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봤습니다. 혜진이는 영화 초반부터 공포에 질려 겁을 먹었어요. 이 그렇그렇해서는 곧 울음이 터질 거 같았어요. 하기 생전 처음보는 엄청난 장면과 귀염둥이 사방을 적시고 있었으니... 나도 사실은 조금 움찔했습니다. 급기야 영화보는 중에 아빠 혜진이란 자리를 바꿔 앉고, 혜진이는 엄마 품에 꼭 안겨서 눈과 귀를 막은 채 영화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제대로 영화에 몰입이 안되었지요.

그러데 영화가 다 마치고 나오면서 가슴이 터질 거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지요.

"동생 때문에 그러는 형이 이해돼? 애들은 그걸 이해할까?"

"우리아 이해되지. 애들은 안될거야."

우리 세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보석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동생을 위해 서라면 나 하나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지키려 하고 누이가 많았으니깐요. 그리고 그 동생은 그걸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잖아요.

영화관에 들어가면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사서 가방에 챙겨넣고 갑니다. 극장 안에서 파는 음식이 너무 비싸데다 '외부음식 반입 금지'라는게 부당하게 느껴져서 일부러 그랬지요.

혜진이는 이해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 지사항을 엄마가 공공연히 여기는 것이나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나 다 말입니다. 유현이도 영화가 재미없었다네요. 오늘은 엄마 아빠만 좋았지요.

#### 2004. 3. 3 / 중학생이 된 유현이

오늘 유현이가 중학교 입학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학식이 있었답니다. 유현이는 교무실에 앉아서 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입학식은 있었지요. 입학식이 끝난 후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절차를 밟았으니깐요. 어제 아침부터 하루종일 전학절차 학교, 교육청, 전학할 학교, 교복사 등에 쫓아다녔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지요. 하도 종종 걸음을 치고 다녀서 골이 지끈지끈했습니다. 하지만 새학교의 담임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 만사 OK라며 한숨 놓았는데, 그제 교복 불량하우스가 틀리다고 해서 오늘 또 교복사에 다녀왔습니다.

"교복은 좀 허바리같이 험렁한거 입어야 졸업할 때까지 입는다"

교무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이 지긋하신 남선생님들께서 놀리듯이 말씀했는데 제 좋은데로 마음에 맞는 것으로 구입해놓고 찜찜합니다. 이제 두

달 입고 다시 하복으로 바꿔 입을 거데...  
엄마들 마음은 대충 비슷할 거 같습니다. 아래층 복지연합 처녀 총각들 모두 내 기분 보다 유현이 기분만 생각하는 데 대안가정 운동본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아호자씨는 알아주세요. "그거 억수로 찜찜하제" 하면서...

하복부터 교복 입는 학교도 많던데, 막 자라는 애들 두달동안 극 동복을 입혀야 하는지...

하지만 유현이는 신났습니다. 지가 워하던 메이커에다가 몸에 예쁘게 맞는 교복 입고, 머스쟁이 남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니깐요.

#### 2004. 3. 13 / 탄핵무효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리는 탄핵무효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탄핵무효! 국회 해산!"을 외치며 촛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외치는 세련되지 못한 웅변이 정겨웠습니다. 그는 바로 내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좀 어눌하면 어떻습니까? 세련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눌한 외침일지라도 그 마음의 진심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대구 시내를 한바퀴 돌며 행진도 했습니다. 우병걸 선생님과 모사님도 만나서 리에서 만나서 더 반가웠습니다. 내일도 다음날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나갈 겁니다.

#### 2004. 4. 16 / 혜진이의 시 『숫』

새까마 숫  
밤보다 새까말 수 있는 숫  
집에 나두면 장식품으로 쓸 수도 있다  
장식도 예쁘고  
식탁에 노아도 예쁘고  
숫은 새까마긴 해도 너무 아름답다

혜진이가 시를 썼다. 큰 외삼촌이 예전에 선물한 문집노트에 예쁘게 시를 써서 읽어주었다. 맞춤법이 좀 틀린 곳도 있지만 너무 예쁘다. 거실 문갑에 놓으면, 누군가 선물로 보내준 숫 장식을 보고 시를 쓰는 거 같다. 내가 제대로 시 같은 시를 쓰는게 초등학교 6학년때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시를 쓰면 혜진이는 정말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 가을이는 위탁대상이 아니라는데...

가을이는 지난 1월 12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가정위탁 의뢰되었고, 당일 아동의 부와 고모가 대안가정운동본부를 내방하여 상담을 받았다.

엄마의 암수술로 인해 779g의 초극세 미숙아로 세상에 먼저 나온 가을이는 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인큐베이터)를 받고 있었고, 가을이를 출산한 후 엄마가 사망하면서 총 1억원이 넘는 빚이 아빠의 몫으로 남았다.

빚을 갚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한 집도 내놓은 상태고, 직장생활을 계속하지만 매월 월급에서 1백20만원 정도가 부채로 인한 이자로 지출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보다 초극세 미숙아로 태어나 각종 장애와 질병이 예상되어 집중적인 보살핌과 치료가 요구되는 가을이를 아빠가 양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아빠가 가을이를 양육하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그럴 경우 가을이 아빠까지 수급자로 전락하여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할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다.

삼성병원 주치의는 가을이가 퇴원후에도 1~2개월동안은 모니터(호흡곤란 체크)를 달고 생활해야 하며, 퇴원전에 양육자가 미리 삼성병원에 가서 수유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협조와 주의를 요하므로, 가능하면 가까운 친척이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어렵게 고모를 설득하여 위탁양육하기로 함에 따라 가을이는 퇴원할 수 있었고, 2월 15일 퇴원과 동시에 가정위탁이 시작되었다.

2월 20일 상담자와 위탁모가 관할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위탁가정 지정과 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가을이가 위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친부와 단절로 볼 수 없고, 부양의무자인 아빠가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가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우여곡절을 거쳐 4월 17일자로 확정된 사항은 의료보호 혜택에 그쳤고, 아직 위탁가정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정에는 보건복지부도 한 몫을 했다. 지난 4월 9일 관할 동사무소에서 가정위탁 선정대상 아동의 요건에 대해 질의하며 가을이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는데, 4월 12일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말씀하신대로 부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영유아보육시설이나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면서 대구보육정보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하였다.

이에 4월 12일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다시 질의하자, 4월 19일 "해당 동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또 우리부 의견을 물어서 판단한 것으로 가정위탁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책정되어 도움을 받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라는 답변으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도 없이 다시 일선 행정기관에 떠넘겼다.

가을이의 가정위탁이 이루어진 이후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없었던 2개월동안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송광익소아과를 주치의병원으로 지정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초기지원금 30만원과 월 양육비 15만원, 유아물품 등을 지원하며 계속적인 지지상담을 펼치고 있다.

현재 가을이는 청력반응검사에서 수치가 0으로 나와 5~6회 이상 재검사를 하여 수술을 할 것인지 보청기를 착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안과 검진 결과 시신경이 자라고는 있으나 4시간마다 안약을 투여하며 지켜보아야 하는 상태이며, 다리 근육에도 이상이 발견되어 정기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 <병의원 진료 일지>

1/27	삼성병원 주치의 상담(전화)
2/15	삼성병원에서 퇴원
3/15	송광익 소아과/간염2차 접종
3/17	삼성병원/안과 진료
3/22	송광익소아과/BCG 접종
3/31	송광익소아과 진료
4/1	가톨릭병원 진료
4/6	가톨릭병원 진료
4/12	가톨릭병원/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발달클리닉, 소아과 진료
4/19	송광익소아과 진료
4/20	송광익소아과 진료
4/22	송광익소아과 진료
4/26	송광익소아과/DDT 1차 접종
5/6	가톨릭병원/안과(예약)
5/10	가톨릭병원/소아과(예약)
5/20	가톨릭병원/재활의학과, 소아과, 발달클리닉(예약)
5/25	가톨릭병원/이비인후과(예약)

### <행정기관 관련 일지>

1/12	최초상담(전화, 내방)
2/15	가정위탁 시작
2/20	전입신고, 위탁가정 및 수급자 신청/거부당함
2/20	위탁가정 지정절차 문의, 부채증명서(부) 요구
3/15	위탁가정 지정 재신청, 부채증명서(부) 제출
4/6	가정위탁건 처리지연 통보받음(우편)
4/12	가정조사차 방문, 대출이자 지출명세서 요구
4/14	대출이자 지출명세서 제출
4/16	위탁대상 불가 통보 받음
4/20	의료급여 혜택만 가능하다는 통보 받음

## 아동복지사업지침을 통해 본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은 현재 가정위탁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 명시된 아동위탁관련 조항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복지사업지침에서 제시하는 가정위탁 관련 조항에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지침의 내용이 현실성과 구체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아직도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2004년 아동복지사업지침에서 그 예를 찾아보며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짚어보았다.

### ■ 대상아동 요건

2003년 「15세 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되어있는 대상아동을 2004년에는 「①18세 미만의 아동,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②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명시하여 대상아동의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이라고 광범위하면서도 불명확하게 제시하여, 대상아동을 판단함에 있어 위탁기관과 일선 행정기관 간의 견해차가 발생할 소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위탁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 위탁가정 선정기준

일반인에 의한 위탁일 경우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 위탁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위탁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등의 4가지 요건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과 맞지 않더라도 위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대상가정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 ■ 지원내용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비가 월 7만원으로, 5천원 상향조정되었다.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액수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위탁아동을 수급자로 지정하여 생계비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탁보호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위탁아동과 실제 부양의무자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할 것」이라는 규정에 해당하는데, 「위탁아동과 부양의무자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에 대한 해석을 놓고 발생하는 일선행정의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문제를 가정위탁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현행 제도내에서는 무리이고, 담당공무원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위탁아동이 수급자로 지정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하도록 신설, 학대아동의 위탁보호시 수급자 지정의 근거를 분명히 하여 대조가 된다.

####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신설

그 외 몇 가지 내용들이 추가되었지만, 올 7월에 설치예정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 3억원에 조금 못미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면서도(지방센터의 경우, 3명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 개소당 8천4백만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염려가 기우이길 바라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주체의 선정은 공개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지난 2003년 전국의 16개 광역시·도에 17개(경기도 2개소)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정부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업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공식적인 사업결과나 통계자료가 발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현 사업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물론 향후 발전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가장 절실한 가정위탁보호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도 아직 없다.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을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타법에 의존해 지원하는 한 위탁아동의 수급자 지정문제로 인한 위탁기관과 일선 행정기관과의 마찰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위탁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것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상담원 정민경

안녕하세요?

대안가정운동본부 상담원 정민경입니다.

봄이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가 대안가정운동본부의 가족이 된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까지 서투르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매일매일 성실하게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아이들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이 일이 저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고 항상 지켜봐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따뜻함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전해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작은 일에도 미소짓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 ■ 현황 및 소식

### □ 상담내용별 현황

상담 내역	대안가정상담				지원상담			이동- 친부모 연락	기타	계	신규 신청 가정	신규 의뢰 이동
	위탁 의뢰 상담	친부모 상담	대안 가정 신청	양육 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 연계					
1월	26	25	26	20	5	1	9	2	8	122	19	21
2월	28	4	43	22	7	-	16	-	2	121	25	15
3월	18	5	18	11	8	-	6	1	4	71	15	13
분기계	72	34	87	53	20	1	31	3	13	314	59	49

### □ 상담유형별 현황

월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기타상담	계
1월	96	14	12	-	-	122
2월	98	11	6	7	-	122
3월	53	12	4	2	-	71
분기계	247	37	22	9	-	314

## ■ 본부 소식

- **집들이**  
1월 16일 낮 12시부터 하루종일 집들이를 했습니다. 이번 집들이는 1층을 사무실로 쓰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함께 했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TBC [열린아침 오늘이 좋다]에 출연**  
1월 23일 TBC [열린아침 오늘이 좋다]에 김명희 사무국장이 출연하여 대안가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안가정운동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청와대 오찬참석**  
2월 3일 김명희 사무국장이 영부인이 주최하는 청와대 오찬에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 **정기총회**  
2월 16일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실에서 2004년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2003년 사업 및 재정, 2004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대안가정 연결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대안가정 홍보설명회**  
4월 6일 진석타워 웨딩홀에서 개최된 와이즈맨대구알파클럽 4월 정기월례회에서 김명희 사무국장이 대안가정에 대해 30분간 특강을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대안

가정에 관심을 보여주셨고, 대안가정운동본부에 후원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 ■ 아이들 소식

- **태호는 고모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태호를 양육하는 대안가정이 그동안 두 차례나 이사를 하는 등 가정의 변화가 많아 고모네집에서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고모네 집에도 두 자녀가 있지만 같이 키워보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 **하영이가 친부모님에게 돌아갔습니다.**  
3월 16일 하영이가 귀가했습니다. 친부모님과 차에 오르면서 대안가정 엄마를 찾으며 울어댔지만, 곧 적응이 되겠지요. 무엇보다 이혼해서 재결합을 하시게 되어 기쁩니다. 하영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라~~

- **동진이가 아빠를 만났습니다.**  
4월 9일 동진이가 아빠를 만나고 왔습니다. 아빠와 함께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테지요. 동진아! 아빠가 항상 동진을 생각하고 있으니 동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라~~

## ■ 소개합니다

- **새 자문위원들**  
박선아(변호사)님과 고석(대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님께서 대안가정운동본부 자문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두분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효자 선생님!**  
안효자 선생님께서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마다 나오셔서 회원관련 업무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생님 기다리고 있는거 아시죠?
- **환영합니다. 정민경 선생님!**  
정민경 선생님이 대안가정운동본부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민경 선생님은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였고,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생 곽연정 선생님!**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던 곽연정 선생님께서 3월 30일부터 청소년직장체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 ■ 1/4분기 회비 및 후원 내역 (2004년 1월 ~ 3월)

이사회비		정회원 회비		후원회원 회비	
김규원 90,000	김재수 30,000	권오걸 40,000	김재수 30,000	강경희 30,000	이옥화 30,000
송광익 150,000	김지연 30,000	김명희 60,000	김지연 30,000	경훈표 20,000	이원삼 30,000
우국현 90,000	김진석 30,000	김봉섭 10,000	김진석 30,000	고병민 30,000	이유미 15,000
은재식 90,000	김하수 30,000	김휘수 100,000	김하수 30,000	곽은섭 30,000	이윤근 300,000
이수형 600,000	김혜경, 양덕근 60,000	우병걸 90,000	김혜경, 양덕근 60,000	권영활 15,000	이윤재 30,000
이왕욱 90,000	김현희 20,000	이국진 15,000	김현희 20,000	권용한 15,000	이정화 10,000
이태원 150,000	김호근 15,000	이병희 90,000	김호근 15,000	권일섭 30,000	이재성 60,000
정영숙 90,000	김휘동 30,000	이재용 30,000	김휘동 30,000	권응추 50,000	이종미 120,000
	김희수 10,000	장종호 60,000	김희수 10,000	권점숙 30,000	이창성 5,000
	나눔회 60,000	정현수 150,000	나눔회 60,000	김병태 60,000	이채규 10,000
	동진산업 60,000	한미숙 30,000	동진산업 60,000	김광호 20,000	이춘희 30,000
	류시열 10,000	고 석 30,000	류시열 10,000	김기발 15,000	이현숙 30,000
	문우경 30,000		문우경 30,000	김경현 30,000	이혜영 30,000
	박기호 60,000		박기호 60,000	김국종 20,000	이혜진 15,000
	박대산 10,000		박대산 10,000	김길종 30,000	이호용 60,000
	박문욱 30,000		박문욱 30,000	김낙원 30,000	이효순 30,000
	박성천 30,000		박성천 30,000	김동익 30,000	임아정 15,000
	박신연 30,000		박신연 30,000	김명국 30,000	임영진 15,000
	박연금 30,000		박연금 30,000	김명기 30,000	임진규 10,000
	박옥란 30,000		박옥란 30,000	김명희 30,000	장경아 20,000
	박인주 20,000		박인주 20,000	김삼범 60,000	장경은 30,000
	박종화 60,000		박종화 60,000	김상기 15,000	장경철 30,000
	박해숙 200,000		박해숙 200,000	김쌍기 300,000	장병화 30,000
	배성훈 10,000		배성훈 10,000	김수득 30,000	장호덕 30,000
	배창환 10,000		배창환 10,000	김연경 30,000	정경란 40,000
	신은정 30,000		신은정 30,000	김영학 90,000	정미옥 60,000
	신병규 10,000		신병규 10,000	김영태 30,000	정용성 30,000
	심상진 20,000		심상진 20,000	김원수 200,000	정은주 10,000
	심진완 10,000		심진완 10,000	김원식 30,000	정희우 15,000
	심형순 15,000		심형순 15,000	김의룡 30,000	조운주 90,000
	서 숙 30,000		서 숙 30,000	김유라 30,000	조현정 15,000
	손문수 60,000		손문수 60,000		최경호 10,000
	손성라 30,000		손성라 30,000		최봉진 10,000
	송규식 20,000		송규식 20,000		최상근 30,000
	송계무 20,000		송계무 20,000		채승욱 30,000
	안의진 90,000		안의진 90,000		하정욱 40,000
	안이정선 30,000		안이정선 30,000		한은희 30,000
	양정희 30,000		양정희 30,000		한국케이볼TV 100,000
	오길수 30,000		오길수 30,000		황영재 10,000
	오은환 20,000		오은환 20,000		허인향 120,000
	오찬현 30,000		오찬현 30,000		허유희 30,000
	유순정 15,000		유순정 15,000		홍동표 30,000
	유은주 30,000		유은주 30,000		T C N 대구 방송 150,000
	이건호 30,000		이건호 30,000		
	이다연 30,000		이다연 30,000		
	이두옥 30,000		이두옥 30,000		
	이미숙 30,000		이미숙 30,000		
	이병호 15,000		이병호 15,000		
	이상유 10,000		이상유 10,000		
	이상훈 30,000		이상훈 30,000		
	이선희 20,000		이선희 20,000		
	이성희 30,000		이성희 30,000		
	이순임 20,000		이순임 20,000		
	이신자 30,000		이신자 30,000		
	이일영 30,000		이일영 30,000		
	이영찬 15,000		이영찬 15,000		
	이영화 80,000		이영화 80,000		
	이영희 30,000		이영희 30,000		

### 일반후원

김광재 20,000
김진숙 100,000
이태규 30,000
안재현 360,000
원순욱 100,000
삼성탈레스기구 489,000
허정미 60,000
(?) 100,000

## ■ 1/4분기 재정보고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회비			7,195,000	사무비			7,539,550
회비			7,195,000	인건비			4,212,890
이사회비			1,350,000	급여			3,575,000
정회원회비			705,000	제수당			150,000
후원회원회비			5,140,000	보험부담금			487,890
후원금			1,259,000	운영비			3,326,660
후원금			1,259,000	여비			125,900
일반후원금			1,259,000	수용비			574,410
경기대회후원금			-	공공요금			453,030
특별후원금			-	제세공과금			2,000,000
				차량비			5,700
				연료비			51,000
				잡비			116,620
				재산조성비			1,253,000
				시설비			-
				자산취득비			1,253,000
				사업비			1,065,730
				일반사업비			1,065,730
				상담사업			-
				교육사업비			-
				대안가정지원			615,000
				연구조사사업			-
				출판홍보사업			192,460
				행사비			258,270
총계			8,454,000	총계			9,858,280
전년도 이월금			12,038,922	잔액			10,634,642
합계			20,492,922	합계			20,492,922

### ◆ 회비 및 후원 관련 안내

- 대안가정운동본부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로로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금융결제원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 ◆ 회비 및 후원 관련 안내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068-05-005600-9 / 농협: 718-01-176941

국민은행: 602-01-0688-119 / 조흥은행: 801-01-276520

## - 알림 -

### ★대안가정 부모교육

5월 12일(10:00~12:30) 대안가정운동본부 1층 교육실에서 대안가정 부모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안가정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대안가정 자조모임

대안가정 자조모임을 진석웨딩 뷔페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일정은 협의하여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가정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하고 대안가정 부모님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APT 부모교육 프로그램

6월 첫째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매주 수요일(10:00~12:30) 총 6회에 걸쳐 APT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안가정 부모교육을 이수하신 분들과 대안가정을 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 후원안내 -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농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조흥은행 : 801-01-276520

(대구은행의 경우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사무실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타은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안가정운동본부 약도



버스노선 : 일반 434, 603, 616, 623, 650, 750, 808, 836, 906  
좌석 306, 600, 608